

# 전북, 첨단농업·K-푸드 수출허브 본격화

### “2026년 전북 농업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첨단 농생명산업과 수출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

전북특별자치도가 첨단농업 육성과 K-푸드 수출허브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중심으로 총 535,000억원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 수도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민선식 국장은 11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2026년 농생명산업 분야 브리핑을 통해 올해를 전북 농업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첨단 농생명산업과 수출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사업은 △헬프산업클러스터 △AX 기반 지이엔트 스마트팜 △K-푸드 수출 허브단지 조성이다.

헬프산업클러스터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4공구 53ha 부지에 387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조성된다. 재배·가공·연구 개발·제품화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글로벌 메

가센터' 1호 사업으로 지정돼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현재 20여개 기업의 투자인허가를 확보했으며, 특별법 범위와 부지 조성, 인허가 지원 등을 병행해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한다.

AX 기반 지이엔트 스마트팜에는 2조 6,800억원이 투입된다. 880ha 규모 부지에 시와 빅데이터를 접목한 완전 자동화 농업시설을 203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1단계로 2028년까지 16ha 규모의 국가농업 AX플랫폼센터와 테스트베드를 조성한 뒤, 시장주도형·농업인 주도형 스마트팜 단지로 확대한다.

K-푸드 수출 허브단지는 2조4,2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에 60ha 규모 콜드체인 시스템과 120ha 수출전문 가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항만·공항·철도 인프라와 연계해 농식품 수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경제성 분석 결과(B/C 1.16)를 확보했



민선식 국장

며, 2027년 예비 타당성조사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전북은 전국 최다 수준인 18만 7,000근주의 미생물 자원을 기반으로 그린 바이오산업 육성에

진한다.

농촌 활력 회복 정책도 병행한다. 전북은 45세 미만 청년 농업경영주 비율이 6.1%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29년까지 청년 디딤돌 스마트팜 4개소에 400억 원을 투자해 청년농 정착 기반을 강화한다.

장수군과 순창군에서는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2년간 시행된다.

연간 855억원 규모로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증하며 전북형 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생명산업수도 전북 비전 선포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농정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전북 농업의 구조 전환을 추진해 왔다”라며 “2026년을 전북 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을 선도하는 분수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

# 도, 청년 정책 시행계획 확정

### 100개 사업 총 3577억 투입...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지원 확대 청년 현장 목소리 반영한 청년참여예산사업 신규 3건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올해 3,577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1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차) 이정훈(주)푸드네이처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2026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10여 명이 참석해 청년들의 미래 실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어지는 청년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청년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경제·사회 구조적 과제로 접근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교육·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개 분야에 걸쳐 100개 사업을 마련했다.

일자리 분야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RISE)과 청년 직무인턴 등 28개 사업에 2,229억원이 투입된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는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지원 등 12개 사업에 189억원이 배정됐

다.

주거 분야에는 전북 반환 임대주택 건립,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 9개 사업에 578억원이 투입된다. 금융·복지·문화 분야는 전북청년 합성패키지 지원 및 위기 청년 전담지원 등 40개 사업에 556억 원 규모다. 참여·기반 분야에는 전북 청년허브센터 운영, 청년 소통공간 활성화 등 11개 사업에 25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 청년참여예산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을 수렴해 '농생명기반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 '청년 1인가구 식생활 개선 요리교실 운영', '청년 미래농민사업(예비신혼부부 및 자립준비 청년지원)' 등 신규 3개 사업을 포함해 2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이번 정책을 통해 진로 탐색부터 취업 연계, 자산 형성까지 이어지는 '전북형 고용안정 사다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1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방문... 봄철 산불 대응 점검 나서

### 김관영 도지사, 산림청·도 헬기 공조체계 현장 확인... 초동 대응 강화로 대형 산불 사전 차단 강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1일 익산산림항공관리소를 찾아 봄철 산불 대응에 힘쓰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항공 진화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대형 화재를 사전에 막기 위한 항공 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날 산불 진화헬기 계류장과 운항·정비 시설을 둘러보며, 유사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산림청 보유 헬기와 도 임차헬기 간 공조체계를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권역별로 임차헬기 3대를 분산 배치해 운영 중이며,



11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익산산림항공관리소를 찾아 봄철 산불 대응에 힘쓰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항공 진화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은 익산산림항공관리소를 거점으로 대형·중형 헬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고 접수부터 공중 진화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항공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골드타임 내 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익산산림항공관리소와 긴밀히 협력해 항공 중심의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전북 산불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분이 도민 안전의 버팀목”이라며 “항공 진화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도에서도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

# 전북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결과 '안전'

### 고독성·사용금지 농약 불검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이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약 잔류량 검사에서 모든 골프장이 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밝혔다.

연구원은 매년 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27종 농약의 잔류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2025년 도내 27개 골프장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은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1만호 기자

일부 농약이 미량 검출되는 했으나 모두 농약관리법상 허용된 저독성 농약 7종에 해당해 안전 기준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골프장 유출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물벼룩을 활용한 급성 생태독성 평가를 병행한 결과, 모든 골프장에서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골프장 운영이 인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1만호 기자

# 도, 생식용 굴 18건 노로바이러스 검출... 교차오염 주의 당부

### 도내 유통 생굴 80건 중 18건서 검출... '가열조리용' 표기 확인, 85℃ 이상 1분 이상 가열 섭취 권고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생식용 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사한 80건 가운데 18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식자재마트, 대형마트, 수산물도매시장, 재

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생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굴은 '생식용'과 '가열조리용'으로 구분되며, 가열조리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장기간 생존하고, 극히 적은 양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만큼 전염

성이 강하다. 감염 시에는 12~48시간 이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오염된 조리도구를 통해 다른 수산물이나 식재료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교차오염'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관계 부처와 시군에 해당

업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굴을 구입할 때 포장지에 '가열조리용'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해당 제품은 생으로 섭취하지 말고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에 섭취해야 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는 저온에서도 오래 생존하고 소량으로도 감염되는 특성이 있어 겨울철 생식용 굴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만호 기자

# 전북농어업농어촌위, 2026년 운영협의회 첫발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 공영장 세미나실에서 2026년 전북농어업·농어촌위원회 운영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위원회 운영 방향과 주요 농정 현안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정책 논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황안택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권요안 도의원,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송춘호 전북대 교수, 농업인단체연합회 관계자 등 운영협의회

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위원회 운영계획 △영농형태양광 특별분과 신설 제안 △달라지는 농림·축산·수산 정책 △농촌인력증가센터 지원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확대 △농식품기업 지원 등 주요 농정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1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